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For Examination from 2016

SPECIMEN INSERT

2 hours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This Insert contains the reading passages for use with the Question Paper.

You may annotate this Insert and use the blank spaces for planning. This Insert is **not** assessed by the Examiner.

먼저 다음 설명을 잘 읽으십시오.

이 첨부 시험지에 읽기시험 문제 관련 지문이 있습니다.

이 첨부 시험지 공간에 연습 답안을 써도 됩니다. 이 시험지에 쓴 연습 답안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This document consists of **5** printed pages and **1** blank page.



Text A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1번 문제에 모두 답하십시오.

Text A

아래 글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실린 <열두 달 세시풍속> 가운데 '8월 추석' 부분입니다.

우리 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인 한가위는 한자말로써 추석,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고 한다.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을 지녔고 가위란 '가배' 즉 '가운데'란 뜻이다. 그러므로 한가위란 8월 중에서도 '한가운데'인 보름을 말한다.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는 고대부터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 번 동그랗게 짝 차서 떠오르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가장 고마운 보름달이 뜨면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추었으며, 줄다리기, 씨름, 강강수월래 등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보름달을 숭상하던 고대부터 일년 중 가장 달이 밝은 한가위는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로 여겨지게 되었고, 후에 와서 의식이 생기면서 명절로 오늘날까지 전해진 셈이다.

5

10

한가위의 기원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다. 신라 제 3대 유리왕이 왕녀 두 사람에게 각각 여자들을 거느리고 두 패로 갈라 편을 짜게 했다. 7월 16일부터 날마다 실을 짜는 길쌈 내기를 하여 8월 15일에 승패를 판가름했다.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잔치를 벌이니 이를 가배(嘉俳)라고 하였다. 진편의 여자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다고 전한다.

15

추석은 곡식과 과일 등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라 햇곡식으로 밥과 떡, 술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기 위해 음식을 마련한다. 햅쌀로 밥을 지으면 맛이 좋고 기름기가 돈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송편을 빼놓을 수 없다. 송편 속에는 콩·팥·밤·대추 등을 넣는데 모두 햇것으로 한다. 열나흘날 저녁 밝은 달을 보면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송편을 만든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잘못 빚으면 못생긴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고 해서 처녀 총각들은 송편을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20

추석 음식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추석 술은 백주라고 하는 데 역시 햅쌀로 빚어 조상에게 차례를 올린다. 추석 때는 수확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풍성하여 사람들의 마음도 풍족해진다. 인심 또한 후해서 추석 때에는 서로 음식과 술대접을 하는 수가 흔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25

추석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오랜 역사만큼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벌초와 성묘다. 추석이 되면 조상의 무덤에 가서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 주는 벌초를 해야 한다. 추석을 맞이하여 반드시 벌초하는 것을 효성의 표시와 도리로

30

여겼다. 한가위 때에 성묘를 와서 벌초를 안 하면 보기에다 흥할 뿐만 아니라 불효한 자손을 두었거나 입자 없는 묘라 해서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추석 이른 아침에는 차례를 지낸다. 차례 지낼 때 설날과 달리 떡국 대신 밥을 올린다.

차례를 마치고 난 뒤 적당한 때 소놀이를 한다. 먼저 마을 사람들 가운데 농악대를 만들어 풍물을 올리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한바탕 신나게 어우러져 놀다가 소놀이가 시작된다. 두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그 위에 짚으로 만든 명석을 뒤집어 씌우고 뒷사람은 새끼줄로 꼬리를 달고, 앞사람은 막대기 두 개로 뿔을 만들어 소의 시늉을 한다. 소를 끌고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나 그 해에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 대문 앞에서 '소가 배가 고파 왔으니 음식을 달라'고 외치고 소가 흥내를 내면 주인이 나와서 일행을 맞이한다. 소를 앞세우고 일행은 앞마당으로 들어가 농악을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면 주인집에서는 술과 떡과 음식을 차려 대접한다. 마을 사람들은 한참 놀다가 소를 끌고 다른 집으로 향하며 해가 질 때까지 어울려 논다. 35 40

추석 즈음에 아이들이 밭에 가서 밭가벗고 자기 나이 수대로 밭고랑을 기어가는 '밭고랑 기어가기'도 한다. 음식을 마련해서 밭둑에 놓으면 아이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밭농사도 잘된다고 생각했다. 45

옛날 학교인 서당에서는 선생님인 훈장을 먼 곳에서 모셔다 학생 즉 학동들을 가르쳤다. 명절이 되면 훈장도 고향에 가므로 서당은 며칠을 쉬고 학동은 자유롭게 놀 수가 있었다. 이 때에 학동들은 원놀이를 한다. 원놀이란 학동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재치 있는 사람을 원님으로 뽑고 나머지 학동들은 백성이 되어 원님께 문제가 되는 사건을 하소연하여 원님이 판결하는 놀이인데, 오늘날 대학에서 행하는 모의 재판과 성격이 비슷하다. 이 때에 지혜로운 원님은 사건을 잘 해결하지만 서툰 원님은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다. 장차 벼슬을 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할 학동들 놀이로서 매우 적격이었다. 50

추석이 지난 다음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날짜와 장소를 미리 정하고 만나는 것을 반보기라 한다. 옛날에 시집간 여자들은 마음대로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녀 사이에 중간지점을 정해서 서로 음식을 장만하여 만나 한나절 동안 회포를 푸는 것이 반보기이다. 또 반보기로 마을의 여인들이 이웃 마을의 여인과 경치 좋은 곳에 모여 우정을 두터이 하며 하루를 즐기기도 한다. 또 각 마을 소녀들도 단장하고 함께 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며느릿감을 점 찍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반보기란 중간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회포를 다 풀지 못하고 반만 풀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또 서해안 지방에서는 추석날 달이 뜰 무렵 여인들이 공터에 모여 강강술래로 달맞이 놀이를 하였다. 55 60

Text B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2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Text B

다음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실린 <열두 달 세시풍속> 가운데 '1월, 정월대보름'에 관한 설명 중 일부입니다.

정월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서 그 해를 설계하고, 일년의 운세를 점쳐보는 달이다. 따라서 정월은 사람과 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며 점쳐보는 달이다. 정월 대보름날을 한자어로는 '상원'이라고도 한다.

한편으로 전통사회의 절기 명절로는 음력 1월 15일인 대보름 7월 15일인 백중, 8월 15일인 한가위가 있다. 이 명절은 보름을 모태로 한 세시풍속들인데 대보름은 음력을 사용하는 전통사회에 있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농경을 기본으로 하였던 우리 문화의 상징적인 면에서 보면, 달은 생명력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 곧 대보름은 풍요의 상징적 의미로 자리매김한다.

5

대보름은 새해의 첫 달인 정월에 있기 때문에 대보름의 풍속은 농경을 기본으로 하였던 고대사회로부터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10

전통사회에서 정월에는 농군들이 휴식을 취하며 농사준비를 한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간의 창조를 위한 신성의례와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얻기 위한 다양한 풍습과 점을 치는 놀이가 행해진다.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농촌에서는, 대개 대보름날 자정을 전후로 하여 마을 공동으로 동제(洞祭)를 지낸다. 가가호호 성의껏 준비해서, 정결한 사람으로 제관을 선출하여 풍요로운 생산과 마을의 평안을 축원하는 것이 바로 동제이다.

15

또한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놀이로 줄다리기를 들 수 있다. 줄다리기는 줄당기기라고 한다. 벼짚을 이용하여 암줄과 수줄을 만든 후에 마을단위로 양편으로 나뉘어 줄을 당기게 되는데, 암줄이 승리를 해야 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있다. 이밖에도 풍년을 기원하는 풍속으로 지신밟기가 있는데, 지신밟기는 정초부터 대보름 무렵에 마을의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며 흥겹게 놀아주고 축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20

개인적인 풍습으로는 대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부스럼 깨기'를 하여 밤·호두·땅콩 등을 깨물며 일년 열두달 중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기원한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처음 사람을 보면 상대방 이름을 부르며 '내 더위 사가라'고 한다. 이렇게 더위를 팔면 그 해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었다. 한편 아침 식사 후에는 소에게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이 오곡밥과 나물을 키에 차려주는데, 소가 오곡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아이들은 대보름날이 되면 연에다 '액(厄)'이라고 써서 연을 날리다가 해질 무렵에 연줄을 끊어 하늘로 날려 보냄으로써 액막이를 한다.

25

30

대보름날 밤에는 달맞이 풍속이 있다. 달맞이는 초저녁에 높은 곳으로 올라서 달을 맞는 것을 말하며,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길하다고 한다. 달을 보면서 달의 모습과 크기 출렁거림, 높낮이 등으로 1년 농사를 점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달집태우기 풍속도 대보름날 밤에 행해지는데, 햇불싸움 과 쥐불놀이도 함께 한다. 짚이나 솔가지 등을 모아 언덕이나 산위에 집처럼 쌓아 놓고 보름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려 불을 지른다. 피어 오르는 연기와 더불어 달을 맞이하고, 쥐불놀이와 더불어 이웃마을과 햇불싸움을 하기도 한다. 35

다리밟기는 12 다리를 밟으면 액을 면하고 다리병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 곡식안내주기는 경남지방의 풍속으로 농가에서는 정초에 자기 집 곡식을 팔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이는 이 시기에 곡식을 내게 되면 자기 재산이 남에게 가게 된다는 속신 때문에 행해진 풍속이다. 40

잡쌀을 찌고, 또 밤·대추·꿀·기름·간장 등을 섞어서 함께 찐 후 갖을 박은 약반 혹은 약식을 준비한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에도 이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어 약식은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의 풍속 음식이다. 이 약반은 지방에 따라 오곡밥·잡곡밥·찰밥·농사밥 등을 지어 먹으며 그 대응으로 즐기기도 한다. 대보름날엔 세 집 이상 남의 집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이 좋다고 하며, 평상시에는 하루 세 번 먹는 밥을 이 날은 아홉 번 먹어야 좋다고 해서 톱툰이 여러번 먹는다. 45

또 대보름의 음식으로 복쌈이 있는데, 이는 밥을 김이나 취나물, 배추잎 등에 싸서 먹는 풍속을 말한다. 복쌈은 여러 개를 만들어 그릇에 노적 쌓듯이 높이 쌓아서 성주님께 올린 다음에 먹으면 복이 온다고 전한다. 그리고 대보름에 귀밝이술이라는 풍속이 있다. 동국세시기에는 "청주 한 잔을 데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 이것을 귀밝이술이라 한다."는 기록도 있다. 50

BLANK PAGE

Copyright Acknowledgements:

Question 1 © *Chuseok*;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ttp://www.nfm.go.kr/Data/cMaug.jsp> October 2013.
 © Jeongwol Daeborn;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ttp://www.nfm.go.kr/Data/cMjanu02.jsp> October 2013.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